



박 응 렬

(주)삼양사부장
비육우PM

고곡가 시대의 비육우 사양관리 포인트

사료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2008년 3월 기준 배합사료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8%이상 증가 하였다. 이와 같은 사료비의 증가 원인은 곡물가격의 인상, 해상운반비의 상승,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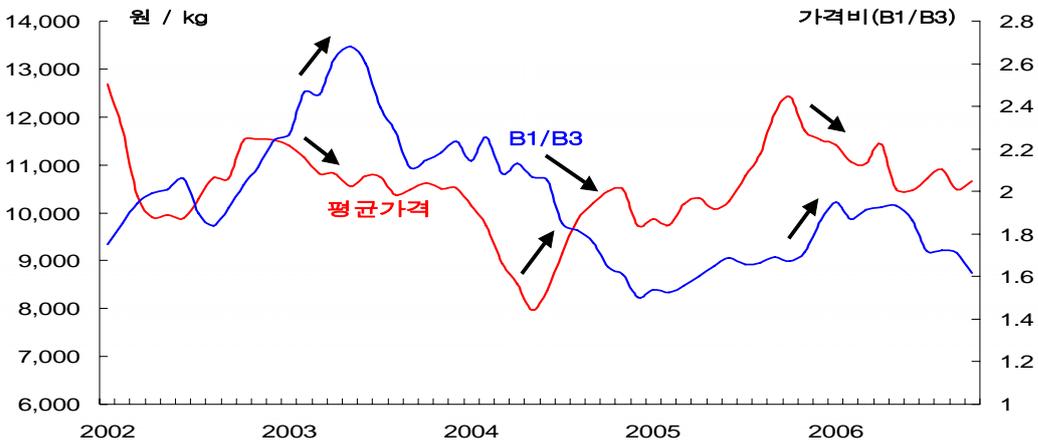
료로 각종 박류의 사용으로,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육우 사육농가들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육우사업의 불안감에 따른 송아지 가격의 하락으로 사료비 상승대비 총 생산비는 소폭

〈표 1〉 비육우 생산비 분석

구 분	2007년 1월	2008년 3월	증감폭
두당 배합사료비	160만원	221만원	38% ↑
수송아지 구입비	230만원	200만원	13% ↓
총 생산비	390만원	421만원	8% ↑

※ "삼양사" 자체 통계 자료 인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인용

〈그림 1〉 국내산 소고기 가격 변동에 따른 한우 등급간 가격 격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표 1), 실제 소 규모의 한우 번식우 농가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총선에 지난 올 5월 전후로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되었을 경우 한우의 산지가격이 두당 20~3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농촌경제연구원). 사료비 인상에 추가하여 한층 더 비육우 양축가의 수익성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고곡가 및 쇠고기 수입 개방화 시대 속에서 우리 농촌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9만 비육우 양축가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유지가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본지에서 이러한 비육우 양축가들이 농장에서 개선 가능한 사양관리 및 경영상의 수익개선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해결방안의 첫번째로 한우의 등급 출현율을 향상을 들 수 있다. 현재 우선 국내산 쇠고기 가격의 추이를 보면 국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국내산 쇠고기의 가격 하락되면 고급육과 일반육간의 가격격차가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

즉 향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국내산 쇠고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 결국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1등급 이상의 고급육 생산만이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을 하는 2~3등급 대비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2007년 한우 등급별 가격격차를 보면 전체 등급간 평균 가격 차이는 두당 112만원이었고, 1등급간의 가격격차도 평균 59만원이다 (표 2). 즉 1등급만 향상을 시켜도 전체 사료비의 27%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최근 한우의 고급육 생산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생후 6~7개월령에 거세를 하여 28~30개월까지 비육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세한우의 전국평균 1등급 출현율은 70% 수준이다. 그러나 경쟁력이 있는 고급육 생산 농가라면 1등급 이상 출현율이 90% 이상의 수익성이 높은 고급육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핵심이 되는 사양관리상의 포인트들만 요약하여 소개토록 하겠다 (표 3).

두번째로 낙농 농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착이 되어있는 농가 자가배합 TMR의 활용이다. 이러한 농가 자가배합

〈표 2〉 육질 등급간 가격 격차

구 분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80만원			
1등급	128만원	48만원		
2등급	167만원	87만원	39만원	
3등급	236만원	156만원	108만원	69만원

* 2007년 1월 ~11월 거세한우 전국 평균



〈표 3〉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상 핵심 포인트

생후월령	핵심 포인트	기대효과 및 주의사항
~6개월	조기 이유 및 양질의 송아지 전용 사료 증량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추위의 조기발달 및 골격 성장 영양소의 충분한 공급 및 골격성장에 따른 출하시 지육중량 증대
6~12개월	양질의 조사료의 충분한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료 종류: 양질의 건초(티모시, 클라임, 버뮤다글라스 등), 급여량: 3~4kg/두.일 조사료/배합사료 비율: 40%~50% / 60%~50% 효과: 반추위 용적증대로 인한 사료 섭취량 증대, 배최장근 단면적(등심)크기 증대, 불가식지방(복강지방 및 근간지방)형성 억제 효과, 28개월 이상 꾸준한 사료섭취를 위한 반추위 관리 가능
13~22개월	배합사료 증량급여, 조사료 볏짚만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합사료 급여량: 생후 14개월령 이후 7kg 이상 급여 볏짚은 자유급여 배최장근 단면적 및 지방침착 증대
23개월~	꾸준한 배합사료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육내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침착하는 시기 이상적인 배합사료 급여량: 8~10kg (다음사료 급여전 2~3시간 전에 섭취 가능한 배합사료를 고정 급여 할 것) 생후 27개월 이후 사료섭취량이 7kg이하로 감소하여 섭취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출하 할 것

TMR을 도입 할 경우에는 최고 50%이상의 사료비를 절감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농가 자가배합 TMR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농장에서 더 큰 효과가 기대되며, 배합비 관련 전문지식과 초기 시설관련 투자가 필요하며, 주변에 쉽고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식품부산물(맥강, 주정박, 비지, 맥주박, 버섯배지 등) 및 싼 가격의 단미원료의 확보가 가능하여야만 원가절감 및 등급출현을 향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한 개 농가에서 시설 및 원료구매가 힘들 경우 몇몇 농가가 어울려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응용 할 수 있는 비육우 TMR 자가배합 요령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4).

세번째로 국내 조사료의 효율적 이용이다.

장기비육을 위해서는 안정된 품질의 조사료의 공급이 필수적이고, 한우 12개월 이상, 육우 10개월 이상의 비육우의 경우 품질변이가 심하고 가격이 비싼 수입산 건초(250~300kg) 보다는 인근의 값싼 볏짚(200~250원/kg)을 활용할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비육을 할 수 있으며 조사료 비용을 20% 이상 절감 할 수 있다. 혹시 주변농가와 원형 사일리지 운반기의 공동 구매가 가능 할 경우, 원형 볏짚 혹은 총체보리 사일리지(120~150원/kg)를 구입하여 사용 할 경우 조사료 비용을 30% 이상 감소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원형볏짚 혹은 사일리지의 경우 3~4개월 이상의 육성우들에게도 아주 우수한 조사료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번째로 발효 건조한 분을 깔짚 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바닥이 항상 건조하고 편



〈표 4〉 자가배합 TMR의 배합비상의 주의사항

생후월령	영양스펙 (건물기준)	배합비상의 주의사항 (건물기준)
6~12개월	조단백질: 14~15% TDN: 74~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질의 건초 사용. 장초비율 35% 이상. 건초를 총채보리 혹은 사일레지로 대체시에는 60% 이상 혼합할 것. 과다한 탄수화물 원료의 사용은 주의 할 것 (옥수수, 소맥, 맥강, 소맥피 등).
13~22개월	조단백질: 13~14% TDN: 76~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료는 볏짚, 수입산 라이그라스(3등급), 톨페스큐(3등급)를 전체 배합비의 15~20% 혼합.
23개월~	조단백질: 12.5~13.5% TDN: 80~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료는 볏짚, 수입산 라이그라스(3등급), 톨페스큐(3등급)를 전체 배합비의 10~20% 혼합. 과다한 단백질 원료의 첨가에 주의 할 것 (루핀, 대두, 알팔파 등). 곡류비율: 50% 이상 (소맥, 옥수수, 보리 등)

※ 1) TDN: 가소화 영양소 총량,
2) 급여형태: 자유급여
3) 적정 수분함량 20 ~40% (수분 조절제로 비치, 맥주박, 버섯배지 사용, 수분 함량이 25% 이상일 경우 발효 첨가제를 병행하여 사용하면 보존성 및 기호성이 개선됨)

안히 누워있는 소가 많은 농장일수록 등급 출현율이 높다. 즉 바닥관리가 잘 되는 농장일수록 등급 출현율이 높는데, 이러한 바닥관리를 위해서는 한우 1두당 평균 15~20만원의 톱밥 깔짚 비용이 소요된다. 만일 이러한 농장이 축사 인근에 지붕이 있는 퇴비장이 있을 경우, 분을 6개월 정도 발효 건조하면 분의 냄새가 거의 사라지는데 이러한 분을 다시 깔짚으로 대용으로 톱밥과 섞어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사용 할 경우 톱밥 깔짚 비용을 50% 이상 절감 시킬 수 있다.

다섯번째로 고급육 생산위주의 계획출하이다. 최근 언론매체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혹은 FTA체결 등에 관한 방송을 자주 접 할 수 있다. 이럴 때면 양축가들의 불안감에 비육우 홍수출하가 발생하고 비육우 판매가격의 일시적인 하락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적정 개월령에 미달된 소를 출하함

으로써 등급 출현율이 낮아 비육우 양축가들은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안정된 수익율의 장기적인 비육우 사업을 위해서는 철저히 고급육 위주로 계획 출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판매 당시에 전체적인 소 시세가 좋지 않아 판매가격이 설사 하락하였더라도, 육질등급이 좋기 때문에 등급에서 수익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소 값이 하락 할 때는 송아지가격 또한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후보소의 구입비가 낮아져서 생산비 절감 효과 또한 기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체결성으로 인한 사료가격 인하 및 브랜드 설립이다. 원료비 상승 및 수입축산물의 증가로 각 배합사료 회사간에도 판매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배합사료 회사는 일종의 장치산업으로 일정량의 가동율 이상을 유지하여야만 수익이 발생한다. 결국 일정량의 물량 확보 차원에서 대군단체에 대



해서는 5~10% 정도의 가격할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사료비를 5~10% 싸게 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게 된다. 단 이 경우 과도한 가격 인하요구로 인한 저가 OEM 사료는 사료의 품질 저하에 따른 등급 출현율을 감소시켜 수익율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OEM 사료를 요청할 경우 비육 및 배합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일정 품질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한 사료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인 단체결성보다는 그 지역 특성의 고급 브랜드육을 생산하여 인정을 받을 경우, 일반 유통업체와의 계약출하가 가능해 짐으로써, 안정적인 출하와 개인의 계통출하 대비 두당 20~3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고곡가 시대에 대비한 비육우 사

양관리 및 경영에 관해서 핵심포인트들을 살펴해보았다. 결국 고곡가 시대의 비육우 양육자들의 수익성 향상의 핵심포인트는 고급육 생산 및 효율적이고 안정된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단기간에는 달성할 수 없으며 꾸준한 관심과 노력, 연구들이 필요하다. 현재 비육우 이외의 축종들은 외국 축산물과의 차별성이 부족해 대외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산 쇠고기만큼은 안전성과 맛에서 이미 국내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수입개방 이후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비육우 사업이 국내의 축산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축종임에 자부심을 갖고 고급육 생산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연구와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